

대만장로교회의 협력선교

김기태목사(대만장로교회 선교동역자)

총회 <선교 아카데미> 제20기 과정 중 <대만장로교회의 협력선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2026.2.9)

대만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 현재 원주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태목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대만장로교회에서의 협력 선교(Partnership Mission)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총회 선교 아카데미의 과정 중 지금까지 뚜렷이 기억되는 두 꼭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지속적인 선교 후원과 건강한 몸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선교사로서 건강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송 받은 후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또 건강을 잃게 된다면 사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북동노회의 전적인 선교 후원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COVID-19) 이후 선교 후원의 지속적인 관리도 잘하지 못하였고 또 건강 관리 역시 잘하지 못하여 제 한 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 보내고 홀로 사역하고 있으니 제가 선교 아카데미 훈련을 받을 때 건강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에 어느 모로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사역 이야기가 선교사로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동역자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총회 때 해외 협력 교단 대표로 참석한 대만장로교회 총회장이 원주민 교회를 도와줄 선교사 파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해 직전 전북동노회는 총회 국제선교부의 소개 아래 대만장로교회의 아메이노회(阿美中會)와 선교협력(Partnership in mission, 2007)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회 서기로 노회장을 모시고 협약에 참여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요청을 받은 총회는 선교 협력을 맺는 해당 노회에서 파송하도록 하여 노회는 긴급하게 선교사를 선발하게 되어 제가 대만장로교회의 선교동역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만장로교회 아메이노회

대만장로교회(台灣基督長老教會PCT)는 24개 노회(中會)와 4개의 족군구회(族群區會:조직교회가 15개 되지 못하여 노회로 인정받지 못한 원주민의 미조족 노회)가 있습니다. 수 천년 동안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원주민은 모두 16개 부족, 인구의 약 2.5%에 해당되는 58만 여명으로, 원주민(原住民) 중 최대 부족인 아메이족(Amis)은 약21만 명으로 동부 화련현(花蓮縣)을 중심으로 농촌,어촌, 산촌,도시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메이족의 3개 노회(阿美中會,東美中會,西美中會) 중 모노회(母老會)인 아메이노회는 90%가 농어산촌에 있으며, 65개의 교회 중 1/3 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언어 훈련

2009년 봄, 파송 받아 도착한 화련(Hualien)에는 중국어를 배울 언어 학당(Language School)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준비 없이 급하게 파송 받은 그곳에서 노회는 전도사들을 언어 교사를 붙여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약 1년의 언어 훈련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담임 목회를 하는 전도사들의 현장 목회 일정으로 인해 결강과 규칙적이지 않은 언어 훈련으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기쁨과 기대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과 걱정이 커져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곳에 언어 학당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언어는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언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역이 힘들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도 어렵게 됩니다.

제가 첫 시작부터 전문적인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함은 사역 하는 동안 매우 후회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화권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든 언어 훈련은 적당히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천천히 오라고 합니다. 慢慢來！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회 사역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지만 언어 훈련 후 노회는 먼저 급한 불부터 끈다는 심정으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순회 사역자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아메이족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1930년대인데, 그 후 세워진 초기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대부분 일 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로,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키듯 대부분 고령(高齡)의 성도들이 교회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게는 5-6명 부터 많게는 20 명까지, 목회자를 모실 형편이 안되는 교회 또 청빙을 하려고 해도 목회자가 없어 부득불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교회, 교회학교와 청소년도 없는 교회들에 노회 전도부가 전권을 가지고 파송해 준 교회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기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사역 할 수 없었습니다.

목회 코칭

대만장로교회는 그 해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모든 전도사들은 함께 모여 제비뽑기 방식(抽籤方式)을 통해 사역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취임한 전도사들은 2년 임기(현재는 3년)후 연임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담임 사역 중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목회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사용의 문제로 인한 갈등, 젊은 전도사들 대부분이 자기 부족어(阿美語)를 못하는데 이로 인한 설교에 대한 불만과 갈등 등 부교역자의 경험 없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통 교회에서의 담임 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신입 전도사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경험을 나누는 코칭(Coaching)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메이족과 교회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와 노회의 선교협력

교단 안에서 대만 노회와의 선교 협력은 가장 먼저 익산노회(彰化中會)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후 전북동노회(阿美中會)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제가 사역하는 중에 양노회를 주선하여 경남노회와 타이루꺼노회(太魯閣中會), 인천노회와 부농노회(布農中會), 서울북노회와 칠성노회(七星中會), 대전광역노회와 싸이더커족군구회(賽德克族群區會) 등이 선교 협력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지평을 넓혀 가는 데에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맞이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다양한 교회의 선교적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함께 나누고 배우는 (觀摩) 한국 교회의 여러 경험들(해외 선교의 모델적 교회, 사회 복지의 모델적 교회, 제자훈련의 모델적 교회, 개척교회의 모델적 교회, 농촌교회의 모델적 교회 등)을 통한 다양한 선교적 경험을 배우며 나고 또 각층으로 저변화 시켜 교류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의 다각적인 선교 협력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파이완노회 루언교회

대만장로교회의 선교사는 3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저는 아메이노회와의 사역 13년을(2009-2022) 마치고 대만장로교회 총회를 통해 파이완(排灣中會) 노회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사역지인 타이중(台中)에서 도시 원주민 교회인 루교회(露恩教會, 2023-현재)를 맡아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이완족(Paiwan)은 인구 11만 명을 가진 두 번째로 큰 원주민 부족으로 대부분 대만의 최남단 핑둥현(류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섬기는 루언교회는 파이완족의 고향인 핑둥현(屏東縣) 사자군(獅子鄉)의 중심론(中心崙) 지역에서 일 자리를 찾아 타이중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처(聚會所)로 모이다가 2020년 5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인구 300만의 타이중은 각지에서 일 자리를 찾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이곳으로 이주한 파이완족은 1,800명에 이릅니다. 이곳에 동서남북 5개의 파이완족 원주민 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루언교회는 어린아이 8명, 청소년 2명, 청년 2명, 일반인 20명 등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대부분이 일용직 건축 노동자입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가정(cell)예배 등이 있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이주해 온 파이완족 동포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요 또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外勞)에게도 꾸준히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는 부름 받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력 선교는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부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고전1:25)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고전3:6-7) 우리는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름 받아 맡겨 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그 마음가짐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딤후4:7)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